

# 배우 이주명, 청춘 대명사 “곧 만개하겠죠”

## 첫 주연작 ‘모래에도 꽃이 핀다’로 자신감 얻어 “부산 출신인 이주명의 사투리 연기도 빛났다”

배우 이주명(30)은 첫 주연작인 ENA ‘모래에도 꽃이 핀다’로 자신감을 얻었다. 처음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떨림이 있었지만, 동료들과 서로 끌어주며 부담감을 떨쳤다. 전작인 ‘스물다섯 스물하나’(2022)에서 고등학생들의 우정과 사랑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씨름을 소재로 청춘들의 성장을 그렸다. “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돌아봤다. 드라마 제목처럼 연기 인생에서 꽃이 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곧 만개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극본이 만화책처럼 술술 읽히고 재미있었다. 제목만 봤을 때 ‘감성적이고 잔잔한 드라마인가?’ 했는데, 첫 회부터 휘몰아치는 코미디와 다양한 케미스트리가 흥미로웠다.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코미디 요소가 섞여 있어서 더 위트있고 매력적이었다. 전작에서 캐릭터 나이가 확 낮아졌는데, 이번 작품이 실제 나이와 달아 있어서 조금 더 편했다. 배우들끼리 같이 밥 먹고 수다 같이 떨고, ‘다시는 이런 현장 없다’고 했다. 지금도 단복방에서 계속 떠돌아서 한번 안 보면 +300이다. 하하.”

이 드라마는 왕년의 씨름 신동 ‘김백두’(장동윤)와 소싯적 골목대장 ‘오유경’(이주명)이 재회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백두와 유경의 소꿉친구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는데 “사투리가 주는 힘이 있다”고 짚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의 사투리로 대화하다 보니 옛날 친구 같았다”며 “촬영 시작 후부터는 거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애드립도 편하게 나왔다”고 회상했다.

극중 장동윤(31)과 임창환 관련해서는 “키스신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두근두근했다”며 “최대한 안 떨리게 보이게끔 했다”고 귀띔했다. 장동윤이 이상형으로 술·담배 안 하고 커피 안 마시는 여성을 짝했는데 “촬영할

때 커피 마시면 ‘너 몇 잔 먹었어? 몸에 안 좋아’라고 하더라”면서 “오빠는 아주 가끔, 힘들 때만 커피를 마신다. 회사 때 제외하곤 술도 안 마시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한다.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 멘탈이 강해 배울 점이 많다. 다음 작품에선 오빠와 타격타격하는 남매로 만나고 싶다”며 웃었다.

부산 출신인 이주명의 사투리 연기도 빛났다. “처음에는 ‘편하겠다’ ‘잘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질감이 들었다. 가족밖에 보지 않은 모습을 꺼내는 거라서 희열감도 느꼈다”며 “사투리를 매개로 배우들과 끈끈해졌다”고 만족했다. “사투리를 쓰니 더 친근하게 느끼더라”며 “백두(장동윤)를 더 친근하게 느끼더라”고 했다.

첫 만남에서 유경이 백두를 업어치기 하는 신도 인상적이었다. 씨름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지 않을까. “난 오랜 기간 연습하지는 않았지만, 씨름 기술과 기본 자세 등을 배웠다. 힘으로만 하면 못 드는데, 살짝 뛰워서 기술적으로 넘겼다”며 “씨름은 코어 근육과 하체 힘이 중요하다. 살바를 잡는 순간 나는 끝났다. 다리가 없구나라고 느낄 정도다. 씨름할 때 무게 중심이 최대한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난 키가 커서 불리했다”고 설명했다. “동윤 오빠가 피멍이 들어서 안쓰러웠다. 증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주저없이 결정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살 찌우기 위해 계속 먹다 보니 소화가 안 되는 고충도 있더라. 나도 나중에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감 가는 수사물도 재미를 더했다. 떡집을 운영하는 ‘이경문’(안창환)이 20년 전 ‘주철옹’(윤정일) 살인사건 진범으로 밝혀졌다. “처음엔 다들 본인이 범인 같다고 하더라. ‘현옥’(윤종석)은 진짜 자기인 것 같다고 했



다. 중간에 극본이 나온 뒤 진범을 알았다”며 “수사물이라고 하면 딱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귀엽게 비춰져서 재미있었다. 경찰로서 유경을 연기할 때도 무게감있기 보다, 본업이라서 편하게 할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이주명은 모래에도 꽃이 핀다와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통해 청춘 대명사로 거듭났다. 아직까지 친구 이미지가 강한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빠졌다며 “예전에는 현실과 달아있는 이야기를 좋아했으면,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타지, 액션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부연했다. “평소 화를 잘 안 내서 악역을 맡으면 희열

이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학창 시절에 키 순서대로 하면 세 네 번째로 작았다. 화장실도 못 가서 집에 뛰어갈 정도로 내성적이었다. 연기자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내 사사로운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스위치를 켜다가 끄곤 했다. 어떤 때는 밝은 모습을 장악하는 게 좋는데, ‘이게 난가?’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다. 배우로서는 좋은 것 같다. 이번 작품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할 수 있게 해줬고 ‘진심은 통한다’는 걸 알렸다. 나에게 양분이 돼 ‘확실히 꽃이 피겠다’는 자신감을 줬다. 그런 꽃 같은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 차은우, 슬로 아이튠즈 앨범차트 21개 지역 1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엔티티(ENTITY)’로 글로벌 음악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16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 발매된 차은우의 첫 미니 앨범 ‘엔티티’가 이날 오전 기준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21개 국가 및 지역 1위에 올랐다.

‘엔티티’는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포함, 브라질·일본·멕시코·필리핀·스페인·대만·덴마크·엘살바도르·카타르·싱가포르·콜롬비아·아르헨티나·페루·칠레·에콰도르·홍콩·파라과이·코스타리카·이집트·아랍에미리트·오만 등 전 세계 21개 지역 톱 앨범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이어 베트남·러시아·태국 2위와 튀르키예·우간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 3위를 포함한 총 34개 지역 톱 10에 올랐다. 타이틀곡 ‘스테이(STAY)’는 아르헨티나·멕시코·페루·칠레·에콰도르·과테말라·콜롬비아 1위를 비롯 총 13개 지역 톱 송 차트 톱 10을 기록했다.

또한 CD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트랙 ‘메모리즈(Memories)’를 제외한 ‘웨어 엠 아이(WHERE AM I)’, ‘너와 단둘이’, ‘Fu\*king 그레이트 타임(Fu\*king great time)’, ‘유어 더 베스트(You're the best)’까지 5곡 전곡이 칠레·콜롬비아·싱가포르 등 지역 톱 송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차트에서는 ‘스테이(STAY)’가 멜론 발매 첫 100 차트와 지니 최신 차트에 안착했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차트에도 진입했다.



## 마동석, ‘범죄도시3’ 개봉 앞두고 日서 환대 받았다

배우 마동석이 영화 ‘범죄도시3’ 개봉을 앞둔 일본에서 환대를 받았다. 17일 소속사 빅픽처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마동석은 지난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범죄도시3’ 상영 전 시사회와 프림미어 시사회·무대인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일본 배우 구니무라 준·야오키 무네타카 그리고 이상용 감독이 함께했다.

이날 24개의 일본 매체가 이날 행사 관련해서 보도했다. 관련 기사들은 일본 최대 포털사 이트니 야후 주요 뉴스 톱과 엔터테인먼트 뉴스 톱을 연이어 장식했다고 빅픽처는 전했다.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무대인사 사진 촬영을 허락한 것도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범죄도시3’ 프리미어 시사회는 한국 영화 최초로 일본에서 열린 형식의 행사다. 일본 배급사 트윈과 ‘범죄도시3’ 제작사들이 협력해 넷플릭스 ‘리키시’ 주연을 맡은 이치노세 와타루, ‘크로우즈 제로’ ‘원내 경찰’ 기리타니 겐타 등 일본 유명 배우들이 영화를 봤다. 또 ‘바람의 검심’의 오모토모 게이시, ‘에고이스트’의 마츠나가 다이시 등의 감독들 그리고 나고시 토시히로, 고지마 히데오 등 유명 게임 제작자들도 참석했다.

빅픽처는 “여기에 더해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과 일본 최대 배급사 관계자들까지도 마동석과 ‘범죄도시3’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범죄도시3’는 오는 23일 개봉한다.

## 아이유, 개는 흠씨가 됐다구...부유(富有)한 마음으로 부유(浮遊)하다

### 30대가 된 아이유의 책임감과 응원가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31·IU·이지은)는 부유(富有)한 마음으로 삶을 부유(浮遊)한다. 아이유가 지난 16일 공개한 새 미니앨범 ‘더 위닝(The Winning)’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흠씨’ 뮤직비디오가 보여준 그녀의 삶 혹은 음악관이다.

“내 뒤로 착착 따라붙어 / 다 예쁘게 줄지어 / 난 기어코 하늘에 필며 / 음, 왓 어 타이니 리더(What a tiny leader)”

데뷔 15주년(올해가 데뷔 16주년)을 넘고 30대가 된 아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삶과 음악에 대한) 책임감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보인다. 하늘에서 피어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스타가 된 만큼, 다양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물이 ‘위닝’에 반영된 것이다. 넉넉한(富有) 마음으로 마음껏 떠다닐(浮遊) 수 있는 셈이다.

‘더 위닝’은 아이유가 30대가 된 후 처음 발매하는 음반이다. 그녀 20대의 마지막 음반 ‘조각집’(2021)은 아이유가 ‘구태여’ 바깥에 내놓지 않았던 이십대 사이의 조각들의 모습 집이었다.

“조각집”을 복기하면, 아이유의 20대 풍경은 우리가 있고 있던 조각들,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함께 공감해가는 나날들이었다. 어느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말처럼 “가장 20대를 알차게 보낸 여성”인 아이유를

사실 보통 대중이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가장 예쁜 때인 20대는 만개한 꽃에 비유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유는 그 꽃을 꺾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흠씨처럼 견뎌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안부를 묻는 혹은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전해달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개는 흠씨가 됐다구”

아이유가 더 특별한 점은 다소 부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유연하고 위트 있게 풀어내며 생생함을 더한다는 것이다.

아이유는 힙합/R&B 기반의 구성을 지닌 ‘흠씨’의 목직함 드럼&베이스 위에서 다양한 장법을 구현해낸다. R&B 싱어 같은 대목에서 자신의 특징인 치찰음(주로 S에서 생기는 바람소리)을 살리는 듯 자제하며 공간감을 주고, 날카로움을 강조하는 싱잉 래퍼 같은 존재감을 부각시켰다가, “날 따라, 고나 고 투 윈(gonna go to win)” 같은 대목에선 동요를 부르는 듯 천진난만하다. 작곡은 아이유와 함께 그녀의 기존 히트곡 ‘봄 사랑 뽕밭 말고’, ‘스물셋’, ‘블루밍(Blueming)’ 등을 만든 이종훈·이재규 작곡가와 다시 못쳐 해냈다.

인상적인 대목이 많은 뮤직비디오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치 희망이 섞여들 듯 사람들이 부유하는 장면이다. 댄서들도, 아이유를 따르는 아이들도 모두 똑같은 수 없는 동작들로, 아무렇게나 공중에 도달한다.

‘흠씨’와 ‘흠씨’ 뮤직비디오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사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가다. 흠씨처럼 당신이 떠도는 건 극한의 한계를 어떻게든 버려내겠다는 신호이며, 그럼에도 이 세상 어딘가엔 우리의 자리가 있다고 말하는 노래다.

어느 정도 흑독함을 견디고 세상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면, 부유하더라도 아이유처럼 열매를 갖고 자신을 조정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줄이 끊어지더라도 또 다른 당신은 하늘에서 진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 모든 걸 증거할 증인이 있다. 그런 아이유를 닮은 트위터 버드다.



## 씨야 남규리, 13년 만에 신곡...디지털 싱글 ‘할로’

보컬그룹 ‘씨야’ 출신 남규리가 13년 만에 신곡을 낸다. 14일 소속사 하이어랙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남규리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음원 플랫폼에 첫 솔로 디지털 싱글 ‘할로(HALO)’를 발매한다.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키우가 제작하는 이번 싱글은 남규리가 가장한 아니라 작사·작곡에도 참여한다. 누 디스코(Nu disco)에 뉴 웨이브(New wave)의 요소들을 접목시킨 미디엄 템포의 팝이다.

하이어랙은 “가사엔 남규리가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겪은 고민, 격정, 그리고 설렘을 담고 있다”면서 “다시 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소개했다.

음원과 함께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는 팬들과 함께한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앞으로 팬들과 함께할 날들을 그리는 남규리의 모습이 담겼다.